

이 대통령 “대외문제 자해적 행위 안돼”… 통합 정치 시동

비교섭단체 5당·무소속 의원 초청
외교·안보서 정쟁 자제, 협력 강조
의원들, 부동산·노동권 문제 등 건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비교섭단체에 무소속 의원들까지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당과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정식 정무특보,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방 일정,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며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또 참석자들에게 정치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정치를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

는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라면서 “그래서 정치에서는 넓은 시야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과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국민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도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장 먼저 발언을 시작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방균형 발전과 함께 수도권 외곽 지역도 살피달라면서 “특히 안보를 이유로 희생하고 있는 경기 북부와 평택 등 지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평택 시민들이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의 확대가 필요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2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교사 소풍 기피’ 발언과 관련해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추진을 건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나 법원을 다니지 않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준다면 교육 현장이 훨씬 더 활기차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밝히신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조세 형평성 훼손은 물론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구광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한 대표는 “구광 문제는 단순한 국민의 수천만의 개인 정보가 털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문제나 노동권 훼손 문제가 매우 심각한 기업의 문제”라며 “외교적인 사안을 넘어서서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부산·아산으로… 민주, 하정우·전은수 영입

‘AI·국정통’ 앞세워 재보선 승부수
정청래 “새로운 희망이 될 분들”

더불어민주당이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을 6·3 국회의원 재보선 2호 영입 인사로 발표했다. 하정우 전 수석은 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지역 구인 부산 북갑 출마가 예상된다. 3호 인사로는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발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민주당의 새로운 희망이 될 두 분”이라며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을 소개했다. 그는 “하 전 수석은 제가 삼고초려를 넘어 ‘삼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 오고 싶었던 인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하 전 수석은 모두가 가지 않던 인공지능이라는 외길에 매진해 네 이비에 아시아 최고 수준의 AI 연구소

를 세운 입지전적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의 설계자이고 AI 역량이 곧 국력이기 시대 우리 국가 미래 비전을 완성할 필수카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지금 부산에 필요한 것은 미래를 읽는 전략적 사고와 혁신을 실현할 유능함”이라며 “하 전 수석이야말로 부산의 재도약을 위한 최적임자”라고 했다.

하정우 전 수석은 이날 “첫 AI 수석으로서의 국가 AI 전략 수립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한다”며 “꼭 찬 마흔아홉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고 했다.

이어 “해양수도라는 비전과 부울경 경제 기적을 만든 제조업 신화가 AI를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지금 이 대전환과 대도약의 골든타임이

다. 이재명·전재수·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달라. 이 한 몸 부서지도록 일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3호 인재로 발탁된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국정의 심장부에서 단련된 리더”라며 “이재명 당대표 시절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을 지켰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장을 맡아 승리의 기쁨을 닦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과 정책 비전을 국민의 언어로 명확하게 전달해 왔다”며 “지방에서 나고 자라 지역 소멸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해 왔기에 지역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끄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 절실한 마음을 가진 유능한 적임자”라고 했다.

전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소개한 뒤 “(이제는) 국민의 삶을 대변하겠다”고



하정우(왼쪽)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오른쪽) 전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차 인재영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했다. 그는 “이제 브리핑룸의 마이크 뒤가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국민의 숨결을 직접 듣고 더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자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의 맥을 짚어본 경험, 중앙 정치의 정무적 흐름을 꿰뚫는 식견을 오롯이 민생 현장에 쏟아부겠다”며 “국정 경험의 실력으로 확실한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충남 아산 출마가 예상된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與, 정년연장 논의 재개 “상반기 법제화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노동계와 간담회를 여는 등 정년 연장 논의를 재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동자 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3가지의 안을 노사에 제시한 바 있다.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1안)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2안)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3안)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여러논의가 있어왔지만, 이제 그간 논의를 토대로 현장과 함께 해법을 구체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건 우리 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 합의로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정년 연장도 관련된 각 단체들이 함께 해주는 안을 만들려다 보니까 (법제화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법을 만들지 못하면, 그래도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 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소 이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與 광역단체장 출마 의원 8명 일괄 사퇴

전국 14곳서 재보선 실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로써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국면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번 재보선은 전국에서 총 14곳에서 실시되는 사실상 ‘미니 총선’ 급이라는 평

가를 받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의원 8명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한 현역 의원은 ▲울산 남갑 김상욱 ▲인천 연수갑 박찬대 ▲경기 하남갑 추미애 ▲부산 북갑 전재수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광주 광

산을 민형배 ▲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수현 ▲제주 서귀포 위성근 등 8명이다. 국회의장이 제출된 사임계를 수리하면 사퇴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날 민주당 의원 8명이 사퇴하면서, 민주당 의원직 상실로 재보선이 열리는 곳은 총 13곳이다. 이날 의원직을 내려놓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을 합하면 총 14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미니 총선’ 급 재보선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여야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앞서 재보선이 확정된 5곳은 경기 평택과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이다. 경기 평택과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각각 이병진·양문석·신영대 전 민주당 의원이 범민 관결로 인한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됐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충남 아산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선 이후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었다.

/서예진 기자